평생교육리더십연구 5권 2호, 2018.12. pp.5-26 ISSN 2383-5184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Leadership, Vol.5 No.2, 2018.12. www.kalel.or.kr

성격유형(BIG5)과 대인관계에서 재미의 조절효과 연구

박인옥*, 김길옥**, 윤천성***

초 록

오늘날 사회는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모든 생활에서 심리적으로 갈등상황을 일으키는 호소문제는 대부분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았고 원만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대인관계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즉, 긍정적인 정신건강은 삶의 보람과 활력을 느껴 개인과 타인에게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타인과의 소통에서 나를 먼저 알고 타인을 이해한다면 더욱 효율적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인의 성격유형(BIG5)을 파악함으로써 그 특징들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대인관계와 개인의 성격유형에 따라 대인관계를 만족할 수 있는 요인 중에 재미를 투입하여 실증연구를 통하여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독립변수를 성격유형(BIG5)으로 종속변수를 대인관계로 조절변수를 재미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인천, 서울, 대구지역을 있는 일반교육기관에 2018년 9월 6일 - 11월 7일 두 달 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교육에 참석한 40대에서 70대 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배부된 설문지는 200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171로 85.5%가 회수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크리닝 과정을 거쳐, SPSS, v.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격유형(BIG5) 유형 중 친화성, 외향성, 개방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는 높아지고 신경성은 쉽게 흥분하고 예민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며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자신과 타인과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성향으로서, 신경성이 낮을수록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성격특성(Big 5)과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재미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친화성, 신경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의 결과처럼 일상생활 활동 중에 재미를 느끼고 긍정적으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HRD리더십전공 박사과정(주저자) (E-mail: ao-happy@hanmail.net)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경영학박사(공동저자) (E-mail: kkowin21@naver.com)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HRD리더십전공 교수(교신저자) (E-mail: staryoun@hanmail.net)
투고일: 2018년 11월 15일, 수정일: 2018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1일

로 경험하며 삶에 있어 대인관계에서 만족감을 갖도록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미는 일시적으로 느끼는 삶의 요소가 아닌 생활 전반적 모든 면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한다.

성격유형별, 연령별, 직업별로 연구가 이루어져 재미의 요소가 다양하게 도출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성격유형(BIG5), 대인관계, 재미

Ⅰ. 서론

사회, 문화 기술발전, 삶의 양식 변화, 그로인한 인식 변화에 따라 재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것은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이 인간들에게 '물질적 풍요와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 재미를 추구하는 인식의 변화 등에서 재미가 인류문명사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특히 요즘 들어 사회적으로 저 성장 고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겨나고 침체된 분위기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 재미없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자기 개인이 가진 문제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감정을 표출하는 일들도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며 더불어 살아간다는 생각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긍정적인 생각이 요구되는 인식이 필요하다. 소통은 개인의 성격유형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 성격이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주어진 환경에 대처해 나가는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패턴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비교적 지속적이고 중요한 심리적 특징들을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최인숙, 2012). 개인의 성격유형에 따라 본인을 포함한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신만의 행동양식으로 대인관계를 하게 된다(김상군, 2017). 대인관계는 사람이 함께하는 다양한 상황이나 과제에서 상호의존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서로를 이어주는 연계를 말한다(김유진, 2017).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는 타인들과 화합을 잘 이루어 낼 수 있는 능력, 타인과 사이좋은 상태를 지속 시킬 수 있게 하는 기술 중의 하나로 재미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재미는 여유 있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준다. 가까이 있을 땐 힘들고 벅찼던 일들도 뒤로 조금만 물러서면 마음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는 것을 누구나 한번쯤은 체험했을 것이다. 재미있고 대인관계가 풍성하고 밝으면 그만큼 사회가 건강해지며 사는 일이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웃으면서 문제를 검토하고 마음을 모으면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재미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는 접착제 구실까지 한다. 최근에는 재미

가 화두이며 컨셉이다.

대인관계에서 재미있는 사람들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고 한다면 당연히'재미있고 행복하게'라고 대답할 것이다. 재미있으면 행복하고, 재미있으면 대인관계 좋아지고, 재미있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김선진, 2013).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의 성격유형(BIG5)과 대인관계에서 재미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재미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리하는데 의미를 두었으며 또 성격유형에 따라 어떻게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알아봄으로 삶의 현장에서 중요성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임을 논의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성격유형(BIG5)

성격이란 개념은 명료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고 정의를 기껏 잘 해 봐도 구체성이 없고 현실과 동떨어진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문다. 그러나 실제생활에서 사람들이 성격이란 개념을 왜 사용하는가에 대해 탐구해 보면, 보다 구체적인 세 가지 이유가 드러난다. 사람들은 성격이라는 개념을 한 개인에게서 감지하는 연속성과 일관성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람 자신이 행동의 원인이라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또 몇 가지 속성으로 그 사람의 핵심이 요약될 수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김교헌, 원두리, 2006). Costa & McCrae(1992)는 기존의 NEO-PI에 친화성과 성실성을 포함하여 5요인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들이 제시하는 성격의 5요인 모형은 정서적 불안정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외향성을 말한다. 성격특성(BIG5)의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신경성의 5요인의 각 차원은 다음과 같다(권석만, 2015).

첫째, 외향성(Extraversion)은 사회활동성과 능동적이며 적극성을 나타내는 척도다. 즉 타인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을 뜻한다(Costa & McCrae, 1992). 외향성의 에너지수준이 높을 때는 타인과의 어울림을 좋아하고 따뜻하며 사교성이 있다.

둘째, 친화성(Agreeableness)은 신뢰성, 솔직성, 이타성, 순응성, 겸손, 온유의 6개 측면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다. 타인과의 어울림을 지향하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형성해 나가는 특성이다.

셋째,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사회적 규칙과 규범들을 지키려고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자기조절을 잘하면서 책임감이 있고 성취지향적인 성향이 있다(Costa & McCrae,

199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신중하게 행동기준을 엄격하게 정하여 그대로 지켜가는 믿음직스러운 성향을 지닌다.

넷째, 신경성(Neuroticism)은 쉽게 흥분하고 예민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며 피해의식을 많이 갖는다. 신경불안정성으로 자신과 타인과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성향이다.

다섯째, 개방성(Openness)은 지식적인 다양한 자극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탐색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지식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과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양육자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개인의 감정과 사고, 행동을 발달시키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겪으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사회 속에서 기능하며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Sullivan(1953)은 인간은 주요 타인들과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해 나가며, 이러한 대인관계는 인간을 성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고 보았다. Horowitz(1996)는 내담자들이 심리적으로 갈등상황을 일으키는 호소문제는 대부분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이고, 이러한 문제로 발생되는 심리적 장애는 결국 대인관계 문제로 인해 촉발되고 유지된다고 보았다. 즉 원만하고 소통적인 대인관계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삶의 보람과 활력을 느껴 개인의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것이다.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human relation)라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고선형, 2015). 흔히 사용되는 인간관계는 인간과 인간 상호간의 심리적인 관계의 모든 측면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대인관계는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적인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관계와는 구별된다. 한광희(1986), 오현주(1998)는 대인관계를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반응하며 어떻게 타인을 지각하고 그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지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의 양식이라고 하였다. 개인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대인관계는 타인의 시선이나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에만 매몰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데까지 관심을 확장할 수 있는 심적 태세(mental set)이다.

3. 재미(Fun)

일상생활에서 재미와 비슷한 개념으로 즐거움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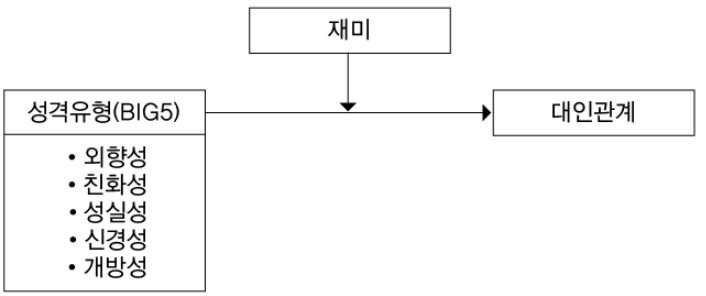
재미를 알기 위해서는 즐거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재미와 즐거움은 활동을 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감정 상태에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재미란 어떠한 활동에 대한 결과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활동 자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몰두하려는 정서 상태이다. 반면 즐거움이란 활동에 대한 만족이나 기쁨과 같은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는 수동적인 정서 상태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마치 재미와 즐거움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서로 다른 상반된 감정으로 이해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정준환, 2012). 한편으로 재미를 촉감이나 미각과 같은 기초를 둔 즐거움과는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감각적 즐거움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자극이 존재한다. 그러나 재미의 경우 이러한 감각의 체험과는 별개로 일어날 수도 있다(서향리, 2011). 다시 말해 음식을 맛보거나 좋은 음악을 듣는 등 오감의 경험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재미를 경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재미는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음식을 먹으며 느끼는 만족, 포만감과 같은 즐거움과는 다른 것이다. 감각적 즐거움이란 직접적인 자극에 의해 나타내는 쾌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쾌감은 즐거움과는 다르다. 즐거움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적 에너지를 축적할 때 나타나며 운동, 독서, 문화 연구 등 새로운 지식에 대한 기대충족이 이루어질 때 느끼는 감정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본 연구는 재미(Fun)가 성격유형(BIG5)과 대인관계에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변수인 성격유형(BIG5)을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성, 개방성으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는 대인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조절변수는 재미로 설정하여 각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H_1. 성격유형(BIG5)은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1\text{-}1}$. 외향성은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1\text{-}2}$. 친화성은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1\text{-}3}$. 성실성은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1\text{-}4}$. 신경성은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1\text{-}5}$. 개방성은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2. 재미는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3. 재미는 성격유형(BIG5)과 대인관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_{3\text{-}1}$. 재미는 외향성과 대인관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_{3\text{-}2}$. 재미는 친화성과 대인관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_{3\text{-}3}$. 재미는 성실성과 대인관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_{3\text{-}4}$. 재미는 신경성과 대인관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_{3\text{-}5}$. 재미는 개방성과 대인관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2. 측정도구 및 조작적 정의

1) 성격유형(BIG5)

Goldberg(1990)는 선행연구 이론을 바탕으로 한 측정도구를 통해 다양한 대상의 형용사를 분석하고 연구를 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BIG5 특성요인의 적합성을 주장하였다. 측정도구는 Costa & McCrae(1992)가 연구하고 제시한 성격유형(BIG5)모델의 정의와 구성개념에 따라 안창규와 이경임(1996)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역하여 제작하고 윤천성(2007)이 사용한 성격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격특성이란 개인의 생각, 느낌, 사고, 외부에 반응하는 개인적인 사회행동으로 보고 환경적 상황에서 개인의 독특한 선택적 행동으로 자신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독특한 개성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

Pincus(1990)의 대인관계 척도를 김유전(2016)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판 표준화 개발한 한국형 대인관계검사(KIIP)를 사용하였으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를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로서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반응하며 어떻게 타인을 지각하고 그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지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재미(Fun)

재미에 관한 조사도구는 김병준, 성창훈(1996)의 재미요인을 기초로 성낙숙(2013)이 사용한 설문지를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Likert척도(5단계)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미는 심리적 안정감으로 이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준비 상태를 말한다. 또한 정신적,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없어져, 매우 가벼운 느낌으로 몸 전체와 마음으로 확산되어 움직임이 쉽게 느껴지며, 그 자체로 즐거워지는 것이라고 의미를 두고자 한다.

<표 1> 설문지 구성

구분	변수 명	하위변인	설문문항		문항 수	출처
독립변수	성격유형(BIG5)	외향성	Ⅰ	1-5	25	Costa & McCrae(1992), 안창규 & 이경임(1996), 윤천성(2007)
		친화성		6-10		
		성실성		11-15		
		신경성		16-20		
		개방성		21-25		
종속변수	대인관계		Ⅱ	1-16	16	Pincus(1990), 김유진 (2016)
조절변수	재미		Ⅲ	1-16	16	김병준 & 성창훈(1997), 성낙숙(2013)
인구통계학적 변수			Ⅴ	1-7	7	연구자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인천, 서울, 대구지역에 있는 일반교육기관에 2018년 9월 6일~11월 7일 두 달 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교육에 참석한 40대에서 70대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하고 이해와 성실한 응답을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배부된 설문지는 200부였으며 회수

된 설문지는 171로 85.5%가 회수되었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성격유형(BIG5)과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재미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성 63명(36.8%), 여성 108명(63.2%)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40대 58명(33.9%), 50대 60명(35.1%), 60대 이상 53명(31.0%)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 157명(91.8%), 미혼 14명(8.2%)으로 나타났고, 직업은 전문/기술직 67명(39.1%), 주부 39명(22.8%), 자영업 23명(13.5%), 사무/관리직 19명(11.1%) 순으로 나타났다. 월 개인소득은 300만원 미만 73명(42.7%), 300-400만원 미만 50명(29.2%), 400-500만원 미만 18명(10.5%), 500만원 이상 30명(17.6%)으로 나타났고, 학력은 중졸 10명(5.9%), 고졸 56명(32.7%), 대졸 65명(38.0%), 대학원 이상 40명(23.4%)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역은 대도시 130명(76.0%), 중소도시 41명(24.0%)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N)	퍼센트(%)
성별	남성	63	36.8
	여성	108	63.2
연령	40대	58	33.9
	50대	60	35.1
	60대 이상	53	31.0
결혼여부	미혼	14	8.2
	기혼	157	91.8
직업	전문/기술직	67	39.1
	사무/관리직	19	11.1
	자영업	23	13.5
	주부	39	22.8
	기타	23	13.5
월 개인소득	300만원 미만	73	42.7
	300-400만원 미만	50	29.2
	400-500만원 미만	18	10.5
	500만원 이상	30	17.6
학력	중졸	10	5.9
	고졸	56	32.7
	대졸	65	38.0
	대학원 이상	40	23.4
주거지역	대도시	130	76.0
	중소도시	41	24.0
합계		171	100.0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사용한 측정도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였는가, 또는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로 측정도구에 의하여 적절하게 측정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구인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고유치(eigen value) 1을 기준으로 요인 간에 독립성을 유지하고, 각 요인의 적재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베리멕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0.40 이상인 경우에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0.50이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인적재량이 0.40 이상인 경우 한 요인

(factor)으로 판단하였다(채서일, 2008). 신뢰성이란 측정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뜻하며 측정변수의 진정한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들에 관한 정확성이나 정밀성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에 사용되는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Nunnally & Bernstein, 1994).

1) 성격유형(BIG5)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성격유형(BIG5)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데이터수의 적정성과 단위행렬 여부를 검증하였는데, KMO지수는 0.888로 나타나 데이터수가 적정함을 알 수 있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2329.181로 p<.001에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요인에 대해서 요인 1(15.744%)은 '외향성'으로, 요인 2(13.271%)는 '성실성'으로, 요인 3(13.081%)은 '개방성'으로, 요인 4(12.425%)는 '친화성'으로, 요인 5(10.980%)는 '신경성'으로 명명하였고, 추출된 5개의 요인에 의해 설명된 누적분산은 65.501%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적재치도 모두 0.40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뢰도 또한 .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성격유형(BIG5)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요인	문항	성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1 외향성	2.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880	.094	.168	.144	-.116
	3. 나는 매사에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한다.	.836	.170	.040	.184	-.171
	5.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끄는 편이다.	.758	.192	.145	.054	-.138
	1. 나는 사람을 늘 따뜻하게 대한다.	.743	.196	.160	.249	-.092
	4. 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743	.300	.142	.209	-.172
요인2 성실성	13. 나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191	.820	.201	.180	-.090
	14.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자 노력한다.	.262	.738	.172	.318	-.025
	11. 나는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235	.725	.293	-.084	-.072
	15. 나는 맡은 바 임무를 확실히 처리한다.	.055	.685	.139	.293	-.053
	12. 나는 사람을 잘 조직 관리한다고 생각한다.	.339	.628	.272	.200	-.039
요인3 개방성	24. 나는 새로운 체험을 좋아한다.	.212	.218	.818	.043	-.033
	22. 나는 문화생활 및 여가를 즐긴다.	.074	.177	.739	.152	-.132
	25. 나는 나와 다른 타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102	.252	.730	.278	-.085
	21. 나는 늘 새로운 것을 생각한다.	.248	.185	.728	.034	.004
	23. 나는 감수성이 예민한 편이다.	.001	.077	.679	.231	.226

<표 3> (Continued)

요인	문항	성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4 친화성	10. 나는 남을 존중하고 나를 높이지 않는다.	-.025	.139	.106	.790	-.104
	8.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한다.	.168	.116	.120	.752	.030
	9. 나는 모든 현상(사물)을 받아들이려 노력한다.	.255	.231	.180	.704	-.085
	6. 나는 사람을 잘 믿는 편이다.	.327	-.040	.242	.638	.057
	7. 나는 모든 일에 정직하다.	.167	.329	.058	.637	-.070
요인5 신경성	17. 나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한다.	-.067	-.055	.071	.052	.741
	20. 나는 조그마한 일에도 매우 민감하다.	-.064	-.040	-.148	-.014	.734
	18. 나는 슬프고 무력감에 빠져있다.	-.268	-.173	-.086	-.044	.716
	19. 나는 열등감, 강박감이 심하다.	-.269	-.218	-.043	-.073	.704
	16. 나는 늘 무엇인가에 쫓기는 것 같다.	.030	.216	.169	-.113	.654
고유 값		3.936	3.318	3.270	3.106	2.745
분산설명(%)		15.744	13.271	13.081	12.425	10.980
누적설명(%)		15.744	29.015	42.095	54.521	65.501
신뢰도		.910	.869	.848	.817	.772
KMO=0.888, Bartlett's test χ^2=2329.181 (df=300, p=0.000)						

2) 대인관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대인관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데이터수의 적정성과 단위행렬 여부를 검증하였는데, KMO지수는 0.949로 나타나 데이터수가 적정함을 알 수 있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2193.522로 p<.001에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총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요인에 대해서 요인1(59.998%)은 '대인관계'로 명명하였고, 추출된 1개의 요인에 의해 설명된 누적분산은 59.998%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적재치도 모두 0.40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뢰도 또한 .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대인관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문항		성분
		요인1
요인1 대인관계	4.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렵다.	.901
	8. 다른 사람을 너무 어려워한다.	.853
	7.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843
	2.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827
	9.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있을 때가 많다.	.825
	11. 내 주장만 너무 내세울 때가 많다.	.816
	12. 너무 잘 속는 편이다.	.797
	14. 너무 존경받고 싶어 한다.	.765
	1.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759
	6. 다른 사람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가 어렵다.	.757
	5.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기가 어렵다.	.753
	15.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참견하고 싶어진다.	.728
	16.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따른다.	.723
	3.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요구일지라도 하기 어렵다.	.675
	13.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애쓴다.	.665
	10.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잘 믿는다.	.658
고유값		9.600
분산설명(%)		59.998
누적설명(%)		59.998
신뢰도		.955
KMO=.949, Bartlett's test χ^2=2193.522 (df=120, p=.000)		

3) 재미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재미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데이터수의 적정성과 단위행렬 여부를 검증하였는데, KMO지수는 0.952로 나타나 데이터수가 적정함을 알 수 있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3283.443으로 p<.001에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총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요인에 대해서 요인1(72.147%)은 '재미'로 명명하였고, 추출된 1개의 요인에 의해 설명된 누적분산은 72.147%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적재치도 모두 0.40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뢰도 또한 .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재미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문항		성분
		요인1
요인1 재미	4.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즐겁고 행복한 활동이 마음에 든다.	.910
	8. 현재 즐겁고 행복한 활동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서 좋다.	.886
	2.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즐겁고 행복한 활동에 관심이 생겨서 좋다.	.882
	9. 현재 즐겁고 행복한 활동 참여를 통해 관심분야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는 것이 좋다.	.882
	15. 현재 즐겁고 행복한 활동 참여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어서 좋다.	.879
	3. 내가 현재하고 있는 즐겁고 행복한 활동이 즐거워서 좋다.	.877
	10. 현재 즐겁고 행복한 활동에 참가한 내 모습이 멋져서 좋다.	.877
	1.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즐겁고 행복한 활동이 재미있어서 좋다.	.864
	6. 현재 즐겁고 행복한 활동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859
	5. 현재 즐겁고 행복한 활동에서 만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	.855
	7. 현재 즐겁고 행복한 활동에서 만난 사람들은 친절하기 때문에 좋다.	.853
	16. 현재 즐겁고 행복한 활동 참여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어서 좋다.	.835
	13. 즐겁고 행복한 활동에 참여하는 내 자신이 대견스러워서 좋다.	.829
	14. 현재 즐겁고 행복한 활동 참여는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다.	.823
	11.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잘 어울린다고 한다.	.784
	12.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알 때 기분이 좋다.	.665
고유값		11.544
분산설명(%)		72.147
누적설명(%)		72.147
신뢰도		.974
KMO=.952, Bartlett's test χ^2=3283.443 (df=120, p=.000)		

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검증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성격유형(BIG5)은 하위요인별 '외향성'(M=3.75), '친화성'(M=3.72), '성실성'(M=3.68), '개방성'(M=3.44), '신경성'(M=2.40) 순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는 평균 3.25점, 재미는 평균 3.72점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격유형(BIG5)의 하위요인별 외향성(r=.475, p<.001), 친화성(r=.452, p<.001), 성실성(r=.330, p<.001), 개방성(r=.352, p<.001)은 대인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경성(r=-.334, p<.001)은 대인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성격유형(BIG5)의 하위요인별 외향성(r=.483, p<.001), 친화성(r=.465, p<.001), 성실성(r=.468, p<.001), 개방성(r=.465, p<.001)은 재미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경성(r=-.224, p<.01)은 재미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r=.459, p<.001)는 재미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검증

구분	M±SD	성격유형(BIG5)					대인관계	재미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성	개방성		
외향성	3.75±.742	1						
친화성	3.72±.610	.464***	1					
성실성	3.68±.647	.537***	.492***	1				
신경성	2.40±.676	-.336***	-.143	-.188*	1			
개방성	3.44±.751	.387***	.420***	.535***	-.066	1		
대인관계	3.25±.738	.475***	.452***	.330***	-.334***	.352***	1	
재미	3.72±.721	.483***	.465***	.468***	-.224**	.465***	.459***	1

*p<.05, **p<.01, ***p<.001

4. 가설의 검증

1) 가설1의 검증

H_1. 성격유형(BIG5)은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1\text{-}1}$. 외향성은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1\text{-}2}$. 친화성은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1\text{-}3}$. 성실성은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1\text{-}4}$. 신경성은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1\text{-}5}$. 개방성은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격유형(BIG5)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7와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4.8%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7.585, p<.001). 독립변수별로는 성격유형(BIG5)의 하위요인별 친화성(β=.268, p<.01), 외향성(β=.251, p<.01), 개방성(β=.162, p<.05)이 대인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경증(β=-.213, p<.01)은 대인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격유형

(BIG5) 유형 중 친화성, 외향성, 개방성이 높을수록, 신경성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는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성격유형(BIG5)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2 (Adj.R^2)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384	.416		3.325	.001		
외향성	.249	.081	.251	3.092**	.002		
친화성	.324	.092	.268	3.512**	.001	17.585***	.348
성실성	-.073	.097	-.064	-.751	.454		(.328)
신경성	-.232	.073	-.213	-3.177**	.002		
개방성	.159	.075	.162	2.112*	.036		

종속변수 : 대인관계

*p<.05, **p<.01, ***p<.001

2) 가설2의 검증

H_2. 재미는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미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1.1%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45.174, p<.001). 독립변수로서 재미(β=.459, p<.001)는 대인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미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 재미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2 (Adj.R^2)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499	.265		5.653	.000	45.174***	.211
재미	.470	.070	.459	6.721***	.000		(.206)

종속변수 : 대인관계

***p<.001

3) 가설3의 검증

H_3. 재미는 성격유형(BIG5)과 대인관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_{3-1}. 재미는 외향성과 대인관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_{3-2}. 재미는 친화성과 대인관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_{3-3}. 재미는 성실성과 대인관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_{3-4}. 재미는 신경성과 대인관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_{3-5}. 재미는 개방성과 대인관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성격유형(BIG5)과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재미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로 성격유형(BIG5)을 투입한 모델Ⅰ의 설명력은 34.8%였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7.585, p<.001). 독립변수별로는 성격유형(BIG5)의 하위요인별 친화성(β=.268, p<.01), 외향성(β=.251, p<.01), 개방성(β=.162, p<.05)이 대인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경증(β=-.213, p<.01)은 대인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변수인 재미가 추가적으로 투입된 모델Ⅱ의 설명력은 37.1%로 2.3%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6.102, p<.001). 이는 추가적으로 투입된 재미(β=.192, p<.05)가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성격유형(BIG5)과 재미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Ⅲ의 설명력은 41.1%로 4.0%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0.072, p<.001). 즉, 추가적으로 투입된 상호작용 변수 중에는 친화성과 재미의 상호작용 변수(β=.170, p<.05), 신경성과 재미의 상호작용 변수(β=-.183,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재미는 성격유형(BIG5)의 하위요인별 친화성, 신경성과 대인관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 성격유형(BIG5)과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재미의 조절효과

구분	모델 I			모델 II			모델III		
	β	t	p	β	t	p	β	t	p
외향성(A)	.251	3.092**	.002	.211	2.590*	.010	.209	2.505*	.013
친화성(B)	.268	3.512**	.001	.229	2.984**	.003	.197	2.467*	.015
성실성(C)	-.064	-.751	.454	-.086	-1.028	.305	-.074	-.893	.373
신경성(D)	-.213	-3.177**	.002	-.196	-2.949**	.004	-.176	-2.625*	.010
개방성(E)	.162	2.112*	.036	.117	1.511	.133	.161	1.946	.053
재미(M)				.192	2.453*	.015	.192	2.388*	.018
(A)×(M)							-.029	-.347	.729
(B)×(M)							.170	2.048*	.042
(C)×(M)							.087	.925	.356
(D)×(M)							-.183	-2.743**	.007
(E)×(M)							.033	.422	.673
F-value(p)	17.585***(.000)			16.102***(.000)			10.072***(.000)		
R^2	.348			.371			.411		
Change of R^2	-			.023			.040		

*p<.05, **p<.01, ***p<.001

V.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성격유형(BIG5)과 대인관계에서 재미가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고자하였다. 따라서 분석결과 성별은 남성 63명, 여성 108명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40대와 60대가 가장 많은 연령대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 157명, 미혼 14명으로 나타났고, 직업은 전문/기술직이 가장 많았다. 월 개인소득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고졸과 대졸이 가장 많았다.

독립변수별로는 성격유형(BIG5)과 대인관계에서 친화성, 외향성, 개방성이 높을수록, 신경성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는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재미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재미는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미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절효과 결과는 재미가 추가적으로 투입된 상호작용 변수 중에는 친화성과 신경성과 재미의 상호작용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재미는 성격유형(BIG5)의 하위요인별 친화성, 신경성과

대인관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도출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박현미(2013)는 대인관계를 사람들 간의 만남을 통해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런 관계를 통해 보다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라 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일반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며 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타인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하는가, 또는 타인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련된 심리적 양식이라 할 수 있다(최명구, 신은영, 2003).

성격유형(BIG5) 유형 중 친화성, 외향성, 개방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는 높아지고 신경성은 쉽게 흥분하고 예민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며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자신과 타인과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성향으로서 신경성이 낮을수록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그렇지만 재미가 조절변수로서의 영향을 미치면 성격유형 중 신경성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인관계에서 성례아(2013)는 재미란 어떤 대상에 대해 생각하면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주는 것이며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이라 정의하였고 송정민(2008)은 삶 속에서의 재미는 힘든 경험이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길러 주며 즐거움, 만족, 기쁨 등의 정서들은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며 정신건강을 높여주는 요인이라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성격유형(BIG5)과 대인관계에서 재미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모든 관계에서 재미요인은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즐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 연령별, 직장별, 성별,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참고문헌

고선형(2015). 성인의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 및 신체이미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희망을 매개로,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대학원.

권석만(2015). 현대성격심리학-이론적 이해와 실천적 활용. 서울: 학지사.

김교헌 · 원두리(2006). 한국판 5요인 마음챙김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871-886.

김병준 · 성창훈(1996). 스포츠 동기요인으로서의 재미: 개념 및 관련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3(2). 99-122.

김상근(2017). 호텔 식음료 및 조리종사자의 개인성격, 갈등유형, 조직성과 간의 영향관계, 박사학위논문, 동명대학교 대학원.

김선진(2013). 재미의 본질. 경성대학교출판부.

김유전(2016). 중년기의 노화불안, 가족건강성, 대인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박현미(2013).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우울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서향리(2011). 스포츠동아리활동 재미요인이 청소년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성낙숙(2013). 파티이벤트 재미가 몰입경험, 여가 및 생활만족, 지속적 참가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성례아(2013). 장편 애니메이션의 재미요소와 관객의 심리적 재미에 대한 상관관계,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손정민(2008). 대학 교양 댄스스포츠 수업의 재미요인과 참여인식 및 수업 만족에 관한 고찰,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오현주(1998). 자기 비판적 우울 취약성과 의존적 우울 취약성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윤천성(2007).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이경임 · 안창규(1996). NEO-PI-R의 임상적 활용. 한국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8(1).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 65-79.

정준환(2012). PBL에 나타난 재미에 관한 질적 탐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채서일(2008).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서울: 비앤엠북스.

최명구 · 신은영(2003). 청소년의 자아구조와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지. 17(4). 1-16.

최인숙(2012). 여성공무원의 성격유형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한광희(1986).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3-4), 521-536.

Allport, G. W.(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Cattell, R. B., & Eber, H. W.(1962). *Handbook for the Sixteen P. F. Test*. Champaign, IL: IPAT.

Costa. P. T. Jr., & McCrae, R. R.(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R) and NEO Five Factor Inventory (NEO-FFI)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Costa. P. T. Jr., & McCrae, R. R.(1992).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relevance to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6, 343-359.

Goldberg, L. R.(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216-1229.

Gould, R. L.(1978). *Transformations: Growth and change in adult life*. New York: Simon & Schuster.

Horowitz, L. M.(1996).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s: A leary leg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ment, 66, 283-300.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ño, G., & Villaseñor, V. S.(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85.

Izard, C. E.(1991). *The psychology of emotions*. New York: Plenum

McCrae, R. R., & Costa, P. T. Jr.(1986). Personality, coping and coping effectiveness in an adult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54, 385-405.

Nunnally, J. C., & Bernstein, I. H.(1994). *Psychometric theory* (3rd ed.). New York, NY: McGraw-Hill, Inc.

Sullivan, H. 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ABSTRACT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u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Personality Type (BIG5)

Pak, In-Ok* · Kim, Kil-Ok** · Youn, Chun-Sung***

*Doctoral Course, Major in HRD Leadership, Seoul Venture University (Lead author)
(E-mail: ao-happy@hanmail.net)
**Ph. D. in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Venture University (Coauthor)
(E-mail: kkowin21@naver.com)
***Professor, Major in HRD Leadership, Seoul Venture University (Corresponding)
(E-mail: staryoun@hanmail.net)

Today society is exposed to intense competi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re very important. Most of the complaints that cause psychological conflict situations in all life are regarded as problems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good communication are positive for individual 's mental health. Positive mental health is a rewarding and rejuvenating feeling of life and can play a functional role that greatly affects the individual and others' happiness.

Also, if you understand me first and know me in communication with others, you can make a more efficient relation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n the personality type (BIG5) by interpreting the personality type (BIG5). As a result,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set as the personality type (BIG5) and the dependent variable as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ose who were educated in general education institutions in Incheon, Seoul and Daegu, 200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and 171 (85.5%) were collected. Statistical processing of the collected data is done through data coding and data cleaning process. 21.0 statistical package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personality type (BIG5) type showed higher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higher affinity, extroversion, and openness, and neuroticism showed a more agitated and sensitive emotional response, a tendency to have negative consciousness of self, others and environment, The

researchers found tha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re more likely to occu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BIG5)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teraction variables, which are controlled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ffinity, neuroticis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s i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y have fun in their daily activities, have a positive experience, finall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satisfaction to life, and their affirmative influence also affects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addition, in the follow-up study, which is a control variable, the importance of the fun that continues in all aspects of fun is not a factor of life that you feel for a moment. In addition, studies by age and occupation should be conducted, and active support and public relations should be carried out by related organizations.

Keywords : Personality Type (BIG5), Interpersonal Relationship, Fun